

한·일 시멘트 업계 친선 교류회

〈 기 획 팀 〉

지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롯데호텔 신관 비즈니스센터 ‘프레스룸’에서는 한·일 시멘트 업계의 사장단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시멘트 업계 친선 교류회」가 열렸다.

이번 친선 교류회에서 양국은 자국의 시멘트 산업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외에도 시멘트 수급현황과 전망,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한 대책마련, 중국 시멘트 산업과 세계 시멘트 무역시장에 대한 논의, 환경문제와 지구온난화 대응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또한 양국간 시멘트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번 「한·일 시멘트 업계 친선 교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양국 현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1. 일본 시멘트 산업의 현황

- 일본의 내수는 지난 1991년 8,650 만톤으로 최고 실적을 시현했으나, 이후 거품경제 붕괴로 감소추세가 지속되었음
 - 2006년 내수 : 5,820 만톤(전년비 99.3%, 전년 수준 유지)
- 2005 ~ 2006년 내수 감소세 주춤
 - 공공수요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민간수요는 증가하여 전체적인 내수는 감소세로 진정되었음
- 2007년 시멘트 내수는 다소 감소한 5,800 만톤 예상
- 지난 2003 ~ 2005년까지 1,000 만톤 수준의 시멘트 수출 지속
 - 2006년에도 수출 지속, 1,010 만톤의 수출실적을 기록
- 2007년 수출은 약 1,000 만톤 수출 예상
 - 최근 일본내 수급이 타이트하여 주요 수출사들이 수출을 줄이고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1,000 만톤 수준의 수출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
- 시멘트 생산은 지난 1996년 9,960 만톤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 지속
 - 지난해 시멘트 생산은 7,320 만톤으로 감소 추세가 진정 국면으로 진입

- 키른 가동율은 2005년 95.13%로 100%에 가까운 가동율 회복
- 지난 1993~1994년만해도 9,800만톤에 가까운 생산능력을 보유했었으나 이후 생산 설비 감축이 지속되어 2005년에는 7,000만톤을 기록 → 각사가 자율적으로 설비를 대폭 삭감하여 경영 개선에 나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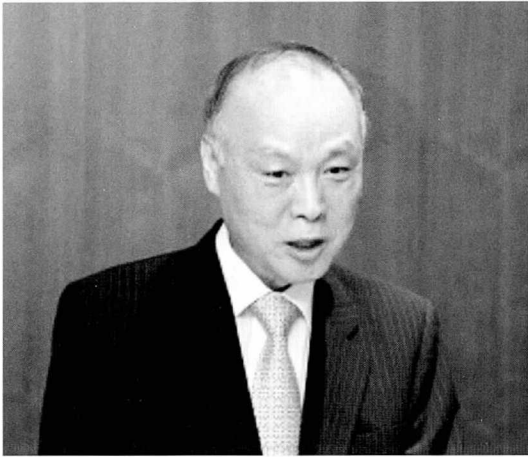
2. 일본의 시멘트 산업 구조조정 배경 및 과정 논의

- 현재 한국 시멘트 산업은 1995~1996년의 일본 상황과 유사, 지난 10년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일본 시멘트 업계의 모습은 한국 업계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 1996년 일본 업체수 20개(40개 공장) → 2006년 18개(32개 공장)로 감소
 - '브랜드' 고려시 10개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음
 - 키른 수는 110기에서 58기로 감소

- 내수는 1996년 8,170만톤에서 2006년 5,760만톤으로 대폭 감소
- 1995년 생산능력은 9,900만톤, 내수는 8,100만톤으로 가동율 80% 상회
- 일본의 시멘트 업체간 합병과 산업 재편성은 수요량에 걸맞는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임
- 생산·물류·판매 부문의 완전 통합방식 합병(태평양시멘트, 주우대판)과 물류·판매 부문만의 통합(우부삼릉)의 통합방식 차이에 따른 장·단점
 - 특별한 장·단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일본 시멘트 산업에서 가장 피크였던 1억 3천만톤 규모의 생산능력 보유 당시, 국가 주도로 '산업 구조원활화법'에 의해 구조조정을 거친 후 자율적인 합병 단계로 진입
 - 판매부문 통합을 통해 원가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동률이 낮은 공장 또는 키른 폐기 등을 병행
 - 생산부문의 통합이 아닌 물류·판매부문 통합으로 정보교류 원활 → 효율적인 구매력 증강



「한·일 시멘트 업계 친선 교류회」에서 현안을 논의중인 양국 관계자들



강동석 한국양회공업협회장



이데 아키히코 일본시멘트협회장

○ 시멘트 전용선, 트럭, Silo 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메리트 발생

3. 중국의 시멘트 수출 문제 논의

○ 한국 시멘트 산업의 경우 경제 고도성장기에는 호황을 누렸으나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도 예상되는 바 한국, 일본, 중국을 통틀어서 시멘트 산업에 대한 미래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필요

○ 향후 중국의 막대한 규모의 공급과잉 물량이 예상되는 바 수출증가를 대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책이 중요, 이는 향후 한·일 양국의 시멘트 산업의 미래상과도 결부된 사항

- 일본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소량의 시멘트 수입이 있으나 품질문제와 복잡한 물류체계로 인한 장벽이 있어 아직까지는 중국산 시멘트가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

- 지난 130여년간 일본은 복잡한 시멘트 물류시스템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를 간단한 유통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본 시멘트 업계의 과제

- 이러한 물류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중국산 시멘트가 일본으로 다량 유입될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시멘트 제품의 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의한 차별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

- 특히 일본의 시멘트 업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각 공장에 폐기물 처리 설비를 도입하여 시멘트 산업이 일본 전체 산업에서의 폐기물 순환산업, 즉 동맥산업과 정맥산업의 역할을 맡는 것이 목표

- 또한 일본의 메이저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 중국산 시멘트 수출에 대처할 계획

- 중국에서 연안지역은 아니지만 2010년까지 환경문제와 효율문제로 인한 2억 5천만톤의 키른 폐기 전망 분석이 있어 2010년 이후에도 큰 우려요소 아님

4. 에너지, 환경 문제 대책 논의

○ 시멘트 연료는 일본과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현재 중국 유연탄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유연탄 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



회의를 마친 후 만찬을 함께하는 한·일 시멘트 업계 최고경영자(CEO)

○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연료계 폐기물 증가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면을 감안할 때 일본에서의 향후 가연성 폐기물의 재활용율 증가 전망

- 현재 일본에서는 시멘트 원·연료로 폐기물, 부산물을 톤당 400kg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목표치로서 이미 2004년에 달성
- 일본 시멘트 업계는 연료로서 폐자원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

5. 양국 시멘트 교역 현황 논의

- 일본의 對한국 수출물량이 한국의 對일본 수출물량의 2배
- 일본의 대한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 1,000만톤의 약 15%인 150만톤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양국 시멘트 업계가 동남아, 아프리카 등 수출선을 다양화하는 등 수요 창출에 노력하고 서로 협

조하는 것이 필요

6. 교류회 종합·결산

- 에너지, 환경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국 시멘트 업계가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토록 희망하는 것을 확인
- 시멘트 업계에 관한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제3국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한·일간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 협력의 기회가 이어지기를 기대
- 당분간 일본의 앞선 지혜를 배우고 전수받는 기회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양국 업계간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음
- 간담회 의제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교환한다면 양국의 시멘트 산업 발전에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 ▲